

상품 생산 측면에서 본 고소설 세책 및 출판의 의미*

이 민 희**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1) 기획 상품으로서의 『남원고사』 |
| 2. 소설의 상품화와 상업적 가치 | 2) 상품 가치로서의 ‘영웅의 일생 서사 구조’ |
| 1) 상품으로서의 소설‘책’ | |
| 2) 생산 주체와 상업적 도덕관 | 4. 나오며 |
| 3. 19세기 세책본·인쇄본 소설의
상품 가치와 통속소설의 위상 | |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20세기 초에 미상의 국문 소설 생산 주체들이 내놓은 소설책의 유무형적 특성을 상품 소설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세책업자나 방각업자, 출판업자 등 소설‘책’ 생산 주체를 단순히 국문 장편소설과 국문 영웅소설을 만든 상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설 유통 및 출판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상업적 도덕관이 투철했던 이들로 평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3611)

** 강원대학교 교수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통속성이 강화된 세책본·방각본·활자본 소설 일수록 보수적 유교 이념을 더욱 공고히 담보하게 되었고, 이에서 생산 주체는 더욱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상품 소설의 증가는 작가의 가치관과 의식뿐만 아니라 출판·판매자의 윤리적 판단까지 개입할 여지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춘향전』 이본인 『남원고사』는 세책용으로 생산 주체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기획 상품에 해당한다. 영웅군담소설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영웅의 일생 서사구조’ 역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 주체들이 자주 활용하던 서사 장치였다.

상업성,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통속소설의 성행은 소설책 제작 및 출판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당대 소설사의 단면을 이해하는 한 방편이 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소설 작품 세계를 새롭게 읽어낼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주제어 : 상품 생산, 생산 주체, 상업적 도덕관, 영웅의 일생 서사구조, 통속소설, 상업적 가치

1. 들어가며

소설 독서를 촉진한 한 동력에 ‘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 구전되던 이야기가 고정성을 지닌 이야기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책’이란 외피가 갖는 힘이 컸기 때문이다. 문(文)을 최고로 숭상하고 독서를 지식인의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하던 유교 사회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소설책을 일부러 생산하기 이전 시기의 책은 대개 이념 실천을 위한 도구이자 특정 소수 독자를 위한 독서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야기’가 상품으로 소비되는 사회와 시대가 되자, 구전 이야

기를 소비하는 것 외에 이야기책의 효용 가치 역시 전대와 비교해 사뭇 달라졌다.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러 상층 여성 독자의 소설 독자가 개인 독서 활동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집단 공유가 가능한 상품 소설책, 곧 세책본 소설이 마련됨으로써 소설 독서는 지속성과 항상성, 대중성, 공유성이란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¹⁾ 이것이 새로운 독서문화를 견인하는 한 축이 되었다. 민간의 상업 종사자들이 일반 독자(고객)를 상대로 상품 소설책을 만들고자 한 것 자체가 의식상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소설이 상품성을 지닌 이야기책으로 독자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설이 일반 책이 아닌 상품성을 지닌 책으로 바뀌고, 상품 소설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과연 소설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 본고는 소설 작품 분석이나 작가 및 독자 중심의 기존 연구 시각에서 탈피해 그동안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생산 주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소설책을 상품화한 이들의 입장에서 소설 발달의 특징들을 고구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생산 주체라 함은 소설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아니라 소설책을 세상에 내놓는 데 관련한 세책업자, 방각업자, 출판업자, 유통업자 등을 망라한 범칭이다.²⁾ 사실 그동안 세책본 소설을 누가 제작했고, 무슨

1) 여기서 말하는 ‘가치’의 개념은 단일하지 않다. 비단 ‘교훈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용성’, ‘흥미성’, ‘편리성’, ‘시의성’, ‘문학성’ 등까지 두루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상업성’, ‘상품성’, ‘통속성’, ‘대중성’의 문제도 함축하고 있다. 고소설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실체와 소설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치문제는 18, 19세기에 소설 독서 문화를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18세기 들어 신흥 독서물인 국문소설을 사회의 비주류였던 상층 여성들이 즐겨 읽었다는 것은 소설 독서를 둘러싼 부정적 편견과 비판이 많았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당시 ‘이야기책’인 소설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결과다. 이때 그 가치의 내용은 오늘날 현대인이 욕망하는 가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2) ‘생산 주체’는 독자를 제외하고 소설책을 만드는 데 관련한 관계자 모두, 곧 개인 또는 집단 창작자, 필사자, 세책업자와 출판업자, 서적중개상 등을 두루 포함하는

목적에서 이런 상거래를 추구했으며, 생산 주체 입장에서 소설사를 보고자 할 때, 무엇이 새롭게 보일 수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는 19세기에 세책본 소설의 뒤를 이어 활발히 나타난 방각본 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작 방각업소에서 방각본을 제작한 업자들은 누구였으며, 어떤 출판 환경에 있었고, 책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나마 20세기 초 출판업자에 관해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³⁾ 일차적 이유는 관련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설책을 상품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내놓은 주체들, 곧 생산 주체를 상정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소설사를 읽어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의미다. 그러나 본고는 범위를 좁혀 소설책 생산과 유통에 관여된 미상의 관계자를 하나의 집단성을 지닌 문화 주체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때 생산 주체는 특정한 시·공간 속에 존재하며 사회 환경과 당대 요구에 부응한 책을 생산한 이들로 한정된다. 그렇기에 고소설의 생산 주체는 제작자이자 수용자이며, 때로 유통업자이기도 하다. ‘수용 주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역학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생산 주체를 살필 필요가 있다.

- 3) 20세기 초 안성판 방각본에 관한 최호석과 이정원의 연구가, 대구의 재전당서포에 관한 최호석의 연구, 그리고 서울 신구서림의 방각본 출판에 대한 최호석, 임태웅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일부 방각본 출판업자를 확정하고, 그들의 출판 및 상업 활동의 면면을 살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20세기 초 생산 주체나 출판업자에 관한 것으로 국한된다.

최호석, 『안성의 방각본 출판입지』, 『국제어문』 34집, 국제어문학회, 2005, 89-129쪽.

_____, 『지송옥과 신구서림』, 『고소설연구』 19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255-282쪽.

이정원, 『안성판 방각본 출판 현황』, 『어문연구』 33권3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05, 161-184쪽.

최호석, 『안성판 방각본 출판의 전개와 특성』, 『어문논집』 54집, 민족어문학회, 2006, 173-197쪽.

_____, 『대구 재전당서포의 출판활동연구-재전당서포의 출판인과 간행 서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권4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06, 229-253쪽.

이정원, 『안성판 방각본의 소설 판본』,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219-244쪽.

임태웅, 『회동서관의 활자본 고전소설 간행 양상』, 『고소설연구』 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475-509쪽 등.

물론 근대 이전 시기에 세책업자나 방각업자, 서적상, 그리고 독자와 작가를 각각 분별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민간에서 세책본과 방각본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주체가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또한 별반 없다. 나타난 현상과 방계 자료만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세책본 소설의 경우, 세책업자가 작성한 세책장부나 외국인들의 기록들을 통해 그 일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⁴⁾ 방각본의 경우, 관련 자료는 더욱더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20세기 초에 나타난 활자본 소설의 경우, 출판업자(편집자) 입장에서 출판과 관련한 견해를 밝힌 것들이 있어 이에서 이전 시기 생산 주체의 의식과 책 제작 목적 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소설의 출판과 상업적 성격에 관한 연구 자체는 많으나⁵⁾ 책이 지닌 ‘물질적 가치’에 주목해 18-19세기에 산출된 고소설

-
- 4) 정명기,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소설에 나타난 세책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3-100쪽.
 전상욱, 『세책 대출장부 연구1: 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 『열상고전연구』 27집, 열상고전연구회, 2008, 361-396쪽. ; 『세책 대출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동양문고본 대출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239-274쪽. ; 『세책 총목록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0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163-183쪽 등.
- 5)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흙영』과 『이재난고』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0집, 동양한문학회, 2010, 5-28쪽.
 김종철, 『상업주의소설론』, 『한국문학의 현 단계 II』, 창작과비평사, 1983.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아세아문화사, 2000.
 류준경, 『지식의 상업 유통과 소설 출판』, 『고전문학연구』 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299-335쪽.
 양승민, 『한문소설의 통속성』, 보고사, 2008.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2007.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이상택·성현경 편,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91.
 이윤석, 『조선시대 상업출판-서민의 독서, 지식과 오락의 대중화』, 민속원, 2016.
 임성래, 『조선후기 대중소설』, 태학사, 1995.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집, 진단학회, 2005, 263-297쪽 ;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등.

작품과 이를 생산해 낸 주체에 관해 논한 것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자료 취급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책의 물질 생산’이란 측면에 좀 더 주목해 18-19세기 조선 사회에서의 고소설의 존재 양태와 가치문제를 다시 고구해 보고자 한다. 고소설 작품이 집단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상품용 독서물로 바뀌게 된 점에 주목해 소설‘책’이 지닌 물질적 가치와 그 사회문화사적 의미에 관해 천착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책(貰冊) 문화⁶⁾와 소설 독서, 그리고 방각 및 활자 출판의 사회문화사적 의미를 좀 더 새롭게 읽어내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소설의 상품화와 상업적 가치

1) 상품으로서의 소설‘책’

18세기 중반 이후에 세책업이 성행한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는, 주지하듯 채제공과 이덕무가 쓴 세책 소설 향유 관련 기록이 유일하다.⁷⁾ 이미 영조 대에 책의 상업적 거래를 책임지던 책괘(서적상)의 규모와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⁸⁾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면 국문소설 책이 상업적 거래를 위한 상품이자 일상적인 독서물로서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졌다.

6) 필자는 세책(貰冊), 즉 ‘도서대여’가 즉흥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회생태학적 현상이라 보고, 이를 감히 ‘세책 문화’로 부르려고 한다. 이때 세책점에서는 단순히 도서 대여만 하지 않고, 직접 책을 제작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했다. 유통뿐 아니라 적극적인 생산까지 담당했다. 세책을 빌려보던 독자와 세책의 성격, 그 경제적, 정치적 환경과 독서 생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한 경향성을 지니고 변화해 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채제공, 『女四書序』, 『樊巖先生文集』 권33 ; 이덕무, 『婦儀(一)』, 『士小節』.

8)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역락, 2007, 44-53쪽.

물론 한문소설과 일부 국문소설은 상품성과는 거리가 먼, 여전히 개인적 독서 전유물로 존재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수의 독자들은 자기 검열을 가하거나 책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겼다.⁹⁾ 그럼에도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소설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세책점이었다.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세책본 소설은 소설이 상품 가치를 지닌 독서용 책의 기능을 한 첫 번째 물건이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상품용 소설책이 첫 선을 보인 것이다. 17-18세기에 수신서 및 교양서 역할을 담당하던 국문장편소설이 상품성을 지닌 물건으로 소설(책)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다. 개인 소장 필사본 소설과 세책본 소설은 동일한 필사본이지만, 개인 소장용으로 자족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 대여를 통해 다수 독자 간 지식 및 정서 공유의 성격이 강한 소설책으로 그 가치가 달라진 것이다.

비싼 책값 대신 저렴한 대여료만 지불하고 다수의 소설책을 골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일반인 독자(소비자)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는 사회구성원(독자)의 요구와 함께 사회 경제 시스템과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었다. 서울에서 세책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울이 책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상업 시스템이 구축되고 일정한 소비 독자층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있었기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타협 지점을 찾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사대부가 여성 독자의 국문소설 독서욕구가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이것이 점차 소설 독서의 대중화, 상품화를 견인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18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소설이 주로 상층 지식인과 사대부가 여성

9) 이민희, 『고소설 독서 주체로서의 사대부가(家) 여성 독자층에 대한 통시적 이해 -계층적 소설 독서 문화 취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95집, 국어국문학회, 2021, 177-215쪽.

독자 사이에서 교양 독서물로서의 성격을 강했던 소설이 상업적 속성이 가미되자, 비싼 책값을 내고 소수만이 제한적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다수의 소설책을 쉽게 빌려 읽을 수 있게 되는 소설 독서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분책화가 용이한 국문장편소설이 발달하게 되자, 독자(소비자)와 생산 주체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상업적으로 ‘책을 대여하는’ 일은 결국 소설이 ‘상품 가치가 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분책’도 가능한 ‘상품 책’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시 말해 상품은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소비될 수 없었기에, 전기수와 같이 소리(낭독) 구연의 기술이 있거나 ‘분책’이 가능한 물질적 외피를 덧입었을 때 비로소 소비자의 독서 욕구를 충족케 하는 상품 가치를 지닐 수 있었다. 이야기(텍스트)의 질 못지않게 물질적 요소에도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소설 독서 환경과 의식 역시 달라진 것이다.

개인 필사본 소설책과 세책용 소설책의 일차적 차이는 책 제작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소설책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이때 책 제작 목적을 결정짓는 당사자는 작가가 아닌 생산 주체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대중성, 통속성을 이용해 얼마나 상품 가치를 지니도록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예컨대, 18세기 초 구전되던 우리말 노래인 시조를 처음으로 시조집 『청구영언』에 기록해 책으로 펴냈다. 구전되던 시조가 비로소 책이란 물질적 요소에 귀속되어 기록된 것이다. 일단 책으로 엮였기에 보다 많은 이들이 공통적이고 지속적으로 작품을 동일하게 향유할 수 있는 원천을 갖게 된 셈이다. 그런데 필사본 시조집으로서의 가치와 19세기 후반에 처음 선보인 방각본 시조집 『남훈태평가』의 가치는 사뭇 다르다. 이는 시대에 따라 책의 성격을 조금씩 달리 보게 된 사회 인식의 결과라 할 것이다. 점차 고정적인 텍스트를 가능케 하는 책의 가치와 그 경제적 효용성을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다.

17세기부터 상층 여성 독자들을 중심으로 국문소설 향유가 이루어졌는데, 18세기 들어 상품 가치를 지닌 세책본 소설의 등장은 상층 여성 독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사대부가 여성 독자계층 취향을 충족케 하는, 교양 있고 교훈적인 내용의 소설을 분책이 가능한 국문 장편소설로 서사 폭이 확대될 수 있었던 데엔 순전히 작가 개인의 순진한 창작 욕구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분책이 상업적으로 이득이 되는 생산 주체의 의도가 다분히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 후 생산 주체의 이윤 추구 의지가 본격적으로 구현된 소설책이 19세기 중반 이후로 대거 등장한 방각본 소설이다. 이것은 당대 문학 향유의 주가 되는 작품들이 물질적 속성과 상품 가치에 대한 인식이 커진 생산 주체들이 늘어나고, 상거래 경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19세기 중반 소설 독서는 생활 속 여가 활동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을 보인다. 소설책을 소비용 오락물로 인식하고 독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상품 가치를 고려해 제작된 결과물이 방각본 소설이었다.

홍한주(洪翰周, 1789-1868)가 『지수염필(智水拈筆)』에서 “책이 많아지고 쉽게 전해지는 것은 실로 인쇄와 출판에 달려 있다(書之多且易傳, 實繇於印槧)”¹⁰⁾며 출판을 강조한 것도 이 시기 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홍한주는 당시 조선이 아직 인쇄와 출판이 자유롭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북경에서는 문사들이 협업해 소설 한 종을 짓고 인쇄업자에게 맡겼을 때, 서사(서점)에서 판매하는 일이 아주 쉽고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홍한주의 이런 시각은 민간에서 방각 출판처럼 책의 대량 생산과 소비를 바라던 사회 구성원의 한 요구사항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 홍한주, 『장서가』, 안대희·이현일 편역, 『한국산문선 9』, 민음사, 2017, 158-159쪽. “嘗聞燕京貢生之旅食者, 窘於資生, 則其二三文士, 輒聚議杜撰, 成出一部小說, 俾付坊刻而鬻於肆, 其易且速然矣.”

한문소설을 제외한 대다수의 소설은 작가를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후기에 작자를 밝힐 필요가 없는 책을 세상에 내놓고자 할 경우, 작품을 처음 내놓은 작가보다 독자의 독서욕이 소설 출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¹¹⁾ 독자(소비자)의 소설 독서 욕구가 커짐에 따라 그러한 독서 취향이 시장경제에 신호를 보냈고, 이런 신호를 세책업자와 방각업자가 재빨리 감지해 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소설책을 다수 내놓게 된 것이다. 서점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소설책의 유통과 생산의 제일선에 위치한 곳이 세책점과 방각소였고, 이에 종사하던 이들의 존재와 그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20세기 초 회동서관, 신구서림, 한남서림 등 유명한 서점을 운영한 서적상들도 출판업을 겸했으며¹²⁾ 책패(서적행상인), 장돌뱅이 잡화상 등도 일부 그 역할을 담당했다.¹³⁾

2) 생산 주체와 상업적 도덕관

근대 이전 시기에 경서나 사서, 문집류의 책은 잡스러운 이야기책인 소설‘책’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자질구레하고 잡스럽다 여긴 이야기를 글로 적어 다수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세상에 내놓고자 할 때, 거기엔 상품성을 지닌 소설책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내놓던 생산 주체들도 그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산 주체들도 소설책을 내놓을 때 자체적으로 일종의 자기 검열, 내지 자기 방어 논리가 필요했다. 그 논리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족적이면서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자체 인식하는 것이었다. 곧

11)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143쪽. 동아시아 3국 중 중국은 작가소설, 일본은 출판인소설, 한국은 독자소설이라 평가할 만큼, 소설사에서 소설 독자와 출판에 영향력이 컸던 주체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다.

12) 이민희, 『(개정판) 백두용과 한남서림 연구』, 역락, 2020, 26쪽, 52-53쪽.

13) 20세기 전반에 고서 전문중개상으로 유명했던 이성의(李聖儀)가 해방 전에 서울 와룡동에 화산서림(華山書林)을 내고 책 판매를 겸했다.(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 서적 유통 관계 연구』, 역락, 2007, 95-96쪽.)

대중성을 지닌 소설책을 내놓을 때 그 존재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유교 지배이념을 거슬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락성과 더불어 이념성까지 둘 다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었다. 그렇기에 유교 사회에서 중시하는 지배이념(권선징악, 충·효·열, 종법제도, 가부장제 등)을 작품 기저에 기본적으로 깔아 놓음으로써 사회적 반발과 일종의 타협을 하면서 세책본, 방각본, 활자본 같은 소설책 상품들을 계속 내놓았다.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도 개인 필사본, 세책용 필사본, 그리고 인쇄본(방각본과 활자본) 중 어떤 형태로 제작되었느냐에 따라 소설책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졌다.¹⁴⁾ 이는 특별히 작자를 알 수 없는 국문소설에서 생산 주체의 손을 거친, 상품 가치를 내건 통속소설에서 그 변개 정도가 심했다.¹⁵⁾ 이는 국문소설 작자의 가치관 또는 작가 의식이 달라졌기 때

14) 『장화홍련전』만 해도 그렇다. 오늘날 전래동화책으로 접하는 ‘장화홍련 이야기’에서 계모를 태어날 때부터 추녀(醜女)인 데다 악녀(惡女)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20세기 초 구활자본 소설에서 구현된 상품 소설 『장화홍련전』(세창서관본, 영창서관본, 박문서관본 등)에서 마련된 것으로, 원래 19세기 초 전동훈의 6대손의 요청으로 박인수(朴仁壽)가 1818년(순조 18)에 쓴 한문본 『장화홍련전』(『가재공실록(家宰公實錄)』)에 나타난 계모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조현설, 『남성 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59-85쪽) 즉 한문본에서 계모가 장화홍련을 핍박하는 이유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전개되는 것에 반해, 20세기 초 활자본 소설에서는 계모가 천성적으로 악하고 얼굴도 괴물 같고, 성격도 괴팍한 악인으로 애초부터 설정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의식을 충실히 구현해 낼, 물개성적 캐릭터로만 활용될 뿐이다. 선인과 악인 간 갈등(대립) 국면을 극명히 설정할수록 재미와 흥미를 동반한 통속성,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5) 한 예로, 국문장편소설 중 하나인 『하진양문록』의 경우, 개인 필사본 『하진양문록』에 비해 19세기 세책필사본 『하진양문록』이 내용상 사회적 통념을 보완하고, 통속적 흥미 위주로 서술을 변화해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이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화사연구』 39집, 민족문화사학회, 2009, 28-56쪽.) 이는 여성 중심적 서술에 흥미를 느끼는 독자를 넘어서 더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통속적 흥미를 가하고자 한 결과이다.

문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개작해 흥미 본위의 이야기로 팔고자 하는 이들의 상업 목적과 독자 취향이 크게 작동한 결과다. 물론 작가 의식이 두드러진 한문소설에서도 19세기에 이르면 통속적 성격이 강한 작품들이 일부 나타났다.¹⁶⁾

일부 사대부가 여성들이 즐겨 빌려 읽던 필사본 소설에 유교 지배이념을 강하게 담아낸 주체는 작가 개인이었다. 17세기 국문소설만 해도 개인적 수준에서 알음알음 향유되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17세기 후반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같은 작품에 깔린 사상과 주제의식은 책 생산자보다 작가 개인의 사상과 관점이 더 강하게 작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한문본)의 작가가 “무릇 사람이라면 남자거나 여자거나 귀하거나 처하거나, 반드시 충효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¹⁷⁾라며 첫 문장에서 소설의 역할을 천명한 것도 작가의 이념을 소설을 매개로 드러내고자 했음을 잘 보여준다. 소설책에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작가의 이념성과 세계관에 좌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가 여성 독자를 중심으로 소설 독서가 생활 속에 점차 녹아들게 되고 여성 독자들의 독서물이 세책점에서 취급하던 소설책이 주를 이루게 되자, 개인 작가보다 생산 주체의 책 제작 목적이 더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세책본 필사본이 더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¹⁸⁾ 19세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가 나타나 대중성을 띠게 되면서 소설책의 의미는 점차 작가적 역량보다 생산 주체의 역할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

16) 19세기 『절화기담』, 『포의교집』 등의 한문소설에서 남녀 간 불륜을 주요 소재로 다루거나 자유로운 성 의식, 도덕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문장편소설의 영향으로 19세기에 등장한 한문장편소설 작품들도 이전 단편 한문소설과 비교해 기존 서사나 여러 모티프를 차용해 통속성을 강화하면서 서사 분량을 확대해 나갔다. 고전소설의 통속성은 ‘한문소설->국문소설’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문장편소설->한문장편소설’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17) 조성기, 이지영 옮김,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10, 19쪽.

18) 大谷森繁 외,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21-89쪽.

었다. 이는 작자미상의 소설책이 더 많아지게 된 것과 비례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작가 개인의 ‘이야기’에서 다수의 독자를 전제로 한 ‘이야기’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이고 자족적 성격에 머물던 ‘이야기의 가치’가 ‘집단적이며 대타적’ 의사소통 수단의 성격을 지닌 독서물로 변화되었고, 그에 비례해 확대된 독자층의 취향을 충족하기 위해 대량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업 주체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방각본 소설에 생산 주체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소비자(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와 흥미 서사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한 것에 있다. 선인과 악인 간의 극명한 대결을 보여주는 기존 서사 구조를 적극적으로 차용해 권선징악이란 주제를 더욱 노골적으로 부각하는 방법이 그 한 예이다. 이것은 특정 작자가 개인적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성 있고 문제적인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성과 상업성을 최우선적 목적으로 삼을 때 구현하기 쉬운 방법이었다. 이때 생산 주체들이 그것을 애초부터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다만 유교적 지배이념에 거스르지 않는 방향에서, 아니 오히려 충실히 유교 이념의 구현을 전제한 채 선악 간 갈등과 실제적 사건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되 거기에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확실히 엮어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다.

19세기에 방각본 소설이 활발히 나타나기 이전인 18세기에 세책본 소설이 큰 거부감 없이 여성 독자층의 일상 독서 문화 속으로 스며들 수 있었던 것도 세책본 소설이 수신서, 교양서, 여가용 오락물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7세기에 창작된 소설은 작가 개인의 창작 목적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18세기 이후에 세책점을 통해 유통된 세책본 소설은 기존 국문소설의 내용과 성격을 계승하면서 유형화가 가능한 상품용 책으로 조금씩 변모됨에 따라 여성 독자들도 큰 거부감 없이 점차 통속적 성격이 가미된 세책본 소설을 즐기는 방향

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정 소설 작품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작가 개인보다 미상의 생산 주체(편집자, 출판업자)의 손을 거치거나, 그들이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상품성이 강화될수록 작가 개인의 문제의식이나 주제의식은 약화되고 몰개성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지만, 18세기 서울의 사대부 여성 독자를 위한 세책본 소설보다 19세기에 다수의 일반 독자를 위해 만들어진 세책본 소설이, 그리고 방각본 소설이 몰개성적인 성격을 지니기 쉽고, 생산 주체의 가치관이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았다. 생산 주체의 이윤 추구 의도가 작가 개인의 문제의식보다 은연 중 더 크게 작용했다 할 것이다.

개인 창작 필사본과 달리, 최소한 상품 가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세책본과 인쇄본(방각본, 활자본)은 비록 특정 작자(또는 개작자)가 있어 원고가 생산 주체에게 넘겨졌다 가정할 때 그 내용이 그대로 세책점에서 필사되거나 방각소에서 목판에 새겨지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최소한 상품 가치를 지니기 위한 조치, 곧 독자 취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원고를 일부 수정하거나 개작, 또는 재편집하는 작업을 거쳤을 것이다. 현전 필사본 소설 또는 인쇄본 소설에 남아 있는 필사기, 광고, 머리말 중에는 편집자, 또는 생산 주체의 시각이라 할 만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있다. 이에서 18-19세기 생산 주체의 관심사와 책 제작 방식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식 서적이 만오되 사람이 넷 경던을 밋어히고 식 풍악이 만오되 사람이 넷 곡조를 조와하니 노의 특히 신소설을 버리고 이 옥년몽을 편즙함이 쏘흔 이러흔 뜻이라 이 책의 원본은 노의 본싱 선도부 담초공(潭樵公)의 저술하신 바니 옥년화 한 가지를 비러 도선 고금의 부부의 이명과 녀즈 도리와 가명의 김흔 풍속 습관을 그려서 세상의 부부처첩으로 아름다운 모범을 엇게 혼지라 그러나 가석흔 사세로 인연하야 맞참닉 출판되지 못히고 그 후 칠십여 년간에 다만 유식즈들이 서로 전츠로

등초하야 상류가당에서는 대기 이척으로써 부녀즈의 경던갓치 숭상하야 착흔 일에도 이 글을 위하야 사모하고 악흔 일에도 이 글을 위하야 증계하야 은연히 가당간 부녀즈 사상과 풍속을 감회케 흠이 적지 아니하나라 그러는 세월이 멀어짐에 등서가 서로 착오되고 권질이 산락하야 장즉 그 진본이 세상에 전치 못홀가 두려워하야 이에 너의 세전하던 원본을 편찬하야 칙스에 부탁하야써 세상에 공포하고 너의 조선의 끼친 뜻을 니으며 우리 이 글을 아시는 너의 희망을 보답하니 청컨디 식 소리가 류형하는 이 시디에 특별히 넷 경던과 넷 곡조를 조와하는 너는 너의 이 생각을 함양하실진더 임자 사월 일 편즈 서당 남당의¹⁹⁾

위 인용문은 1913년 박학서원에서 발행한 구활자본 소설 『옥련몽』 「서언」의 일부로 소장자 겸 편자의 출판 목적과 제작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편자는 남영로의 후손인 남정의라고 했다. 집안에서 원본을 소장해 왔는데 그동안 “가석한 사세”로 인해 출판을 못했었다고 했다. 그렇기에 70여 년 동안 상류층 집안 여성들은 『옥련몽』을 등초(謄抄)해 경전처럼 숭상해 왔다. 그런데 출판하지 않고 필사에 의존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원작을 내용을 온전히 전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원본을 편찬하야 칙스에 부탁하야써 세상에 공포”하게 되었다고 했다. 책사는 서점 겸 출판사를 의미하는 바, 필사본이 인쇄본으로, 다시 말해 『옥련몽』이 더 이상 집안 내 교양 독서거리가 아닌, 누구나 향유 가능한 대중소설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책사가 개입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필사본 이야기가 인쇄본 이야기로 바뀌는 과정에 생산 주체의 손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세창서관에서 간행한 『추풍감별곡』의 「후언」에도 ‘저작자’의 말을 빌려 출판 내력을 밝혀 놓은 것이 있다. 『추풍감별곡』은 작자를 알 수 없는 작품인데, 여기서 ‘저작자’라 함은 특정 개인 작가를 의미하는 것이

19) 「서언」, 『옥련몽』, 博學書院, 1913, 1-2쪽,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0책,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1983 / 류탁일 편,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259-260쪽.

아닌, 세창서관 편집자를 뜻한다. 평양에 전해오던 추풍감별곡이 상실될 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귀로 들던 이야기와 기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두루 참고해 세창서관 편집자가 만들었다고 했다.²⁰⁾ 역시 구전되던 이야기와 기존 문헌에 소개된 이야기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생산 주체가 소설책을 개작해 출판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신구서림 간행 『옥중가인』의 「서문」에서도 유사한 책 제작 방식이 보인다.

출향년이 세상에 던흔지 오르라 …(중략)… 큰 교훈을 썬친 바 | 잇스니 이는 참 조선문예의 조흔 산물이라 그러나 불행히 문인의 붓짓을 친치 못하고 창우의 구두에만 홀너 던흔 고로 세상사람이 만히 그 참갑을 녀기지 아니하니 이 쏘흔 한되논 일이로다 이제 이 창본(唱本)이 출판되랴 흠에 넉 붓딴를 드러 밍길며 궂치는 수고를 잊기지 아니흐노니 이 글을 넘고 참갑을 알아주는 이 잇스면 그 곳 나의 뜻을 안다 흐리로다²¹⁾

이는 공연물인 판소리의 연행 현장과 독서물인 판소리계소설의 독서를 비교한 것이다. 판소리는 창우에 의해 연행될 경우 1회적 공연이다 보니 관객들이 판소리의 내용에 깊이 빠져들기 어렵지만, 글로 재구성된 판소리계 소설은 고정된 텍스트를 갖기에 여러 번 곱씹어가며 읽고 생

20) “저작자 가로되 평양에 추풍감별곡이 류전하미 오래되 그 실사는 업고 감발곡만 잇스니 비유컨대 실사는 썩리요 감별곡은 열매가 되물 애석하온지 오래다가이 저 문체에 천단함과 필법에 로둔함을 도라보지 아니하고 혹 듯기도 하고 혹 책자에서 본 거슬 참작하야 한 썩리를 맨드렸스나 가위 우수마발이라 웃지 붓그럽지 안이 흐리요 열람하시는 동포 자매는 행물후초하심을 바라나이다”(『후언』, 『추풍감별곡』, 세창서관, 64쪽, 『구활자본고소설전집』 32책,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1983 / 류탁일 편,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283쪽.)

21) 「서문」, 『옥중가인』, 신구서림, 1923, 1쪽, 『구활자본고소설전집』 30책,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1983 / 류탁일 편,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286쪽.

각할 수 있기에 그 내용에 깊이 빠져 그 참값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독서물인 판소리계소설 ‘책’의 장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 효용성과 이점을 생산 주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 주체의 손을 거친 독서물은 독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제공해 주고 공통 화제를 가지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그러한 소설책은 대중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다.

소설책을 제작한 주체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 내지 도덕관이 어떠했는지 역시 20세기 초에 간행된 소설책 머리말이나 광고란, 서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 近來에 文運이 隆盛하야 비록 尋常한 俚諺이라도 可히 興盛할 者를 收錄하거든 하물며 九雲夢은 樂而不淫하고 且郡仙圖景致가 具備한대만 風流勝事로만 認치 말고 一團和氣를 涵養하야 齊家之節에 幽閒貞靜의 旨趣를 寓할 시 이에 諺文으로써 新編하야 每回에 보기 極히 便하고 스킴의 마암을 無限히 愉快케 하노니 噫라 淫生이 夢과 如하니 快活의 思想이 아니면 爲觀이 幾何오 大正元年八月日 編輯者²²⁾

② 고서에 운하엿스되 착한 나무에 착한 열매 열고 악한 나무에 악한 열매 열린다더니 장김 양인을 지목하여 말한 것 갓도다 독주시여 김희경과 장슈정의 충효절의와 여러 동렬의 화목하든 형적을 열심 효칙할지 어다.²³⁾

③ 편잡자 가로되 세상시 효행이 웃듬이라 정성이 지극한즉 텃리 무심치 아니하느니 장풍운을 두고 보라²⁴⁾

22) 『서언』, 『신변 구운몽』, 同文書林, 1913. :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9책,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1983 / 류탁일 편,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218쪽.

23) 『후언』, 『김희경전』, 『필사본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80, 303-304면 / 류탁일 편,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222쪽.

24) 『장풍운전』, 영창서관, 1925, 31쪽, 『구활자본고소설전집』 31책,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1983 / 류탁일 편,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267쪽.

①에서 편집자는 『구운몽』(1913)을 한글로 번역해 새로 책을 출판했다고 했다. “風流勝事로만 認치 말고 一團和氣를 涵養하야 齊家之節에 幽閒貞靜의 旨趣를 寓할 식”라 하면서 『구운몽』이 풍류와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화기를 함양하고 집안을 단속하고 정정(貞靜)한 의취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이를 책으로 만들어 새로 소개한다고 했다. ‘화기함양(和氣涵養)’과 ‘제가지절(齊家之節)’, ‘유한정절(幽閒貞靜)’은 편집자가 이 작품의 주제의를 그 나름대로 포착해 낸 것으로, 편집자의 도덕관을 대변한다 할 것이다. 매 회마다 읽기 편하게 번역해 놓았을 뿐 아니라 독자의 마음을 지극히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한편, ②에서는 “독즈시여”라고 호명함으로써 고객을 염두에 두고 생산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주인공의 충효절의와 집안 내 화목을 본받기를 권면한다고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적어도 필사본 『김희경전』의 필사자, 곧 이 소설책을 제공하는 이는 유교 이념의 실천을 목적으로 삼고 이야기책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③에서도 편집자가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를 밝혀 놓았다. 효행이 천리에 순응하는 것인데, 이를 주인공 장풍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편집자는 유교 이념을 배울 수 있는 교재가 바로 소설책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세기 초에 산출된 소설책 편집자들의 변을 종합할 때, 당대뿐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 활동했던 생산 주체들이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소설책을 만들어냈는지 일부 가늠해 볼 수 있다.

상기한 국문소설과 달리, 한문소설은 대개 상업적 출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기에 필사본이나 개인 문집에 실려 전하는 경우가 많고, 창작자의 문제적 의식과 비판적 사유가 그대로 담긴 것이 적지 않다. 이에 반해, 국문소설은 생산 주체와 더 가깝게 만날 개연성이 높았다. 국문소설 중에서도 필사본보다는 방각본에서, 방각본보다는 활자본에서 생산

주체가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았다. 활자본 소설에 권선징악, 또는 해피엔딩과 같은 관습적 서사 유형이 더 두드러진 것도 상업 주체의 출판 개입과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문소설 작품에 구현된 도덕적 가치란 더더욱 진지한 사회적 고민의 소산이라거나 개인 창작자의 의식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교훈성을 빙자한 상업적, 경제적 논리가 더 크게 작동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생산 주체의 가치관이 결국 당대 국문소설 독자층의 취향에도 부합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선 후기 세책업자나 출판업자, 곧 생산 주체들이 당시 소위 ‘독점권’을 누렸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세책점에서 많은 종류의 책을 다량으로 구비해 놓았다는 것은, 달리 말해 상품적 가치를 지닌 소설책에 대해 그만큼 독점과 통제의 힘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전 근대기에 서적상 이외에 일반 독자는 관심 있는 서적을 쉽게 구입하기 어려웠고, 독서물 취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면에서 서적상의 서적 취급은 가히 독점적인 성격을 지녔고, 이 때문에 세책업자는 한동안 가히 ‘안정적인’ 이익 추구가 가능했다. 장편소설을 주로 취급함으로써 대여 횟수가 늘어나고, 장기 대여가 가능했다. 이런 것들이 세책용 책을 필사 및 제본하는 공정까지 안정적으로 이끄는 기반이 되었고, 이에서 일정한 이익 창출이 가능했다.

다수 고객을 상대로 책을 모으고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 세책점은 우리 문학사에서 소설책의 집합과 분배를 조율하는 역할을 처음 맡았던 플랫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스트리밍 서비스에 해당하는 상거래를 처음 시작한 것이다. 세책점을 매개로 여론이 형성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서점이 없었기에 세책점의 기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세책업자는 개인 구매자(독자)의 손이 닿지 않는 약점을 제대로 공략해 소비하게끔 만들어야 했다.

여기서 생산 주체들이 견지했던 ‘상업적 도덕관’에 관해 언급하지 않

을 수 없다. 생산자 입장에서 이런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강력한 보험은 역시나 ‘유교적 지배이념’이었다. 미상의 출판업자들이 구현한 이러한 도덕률이란 대체로 권선징악과 충효열로 표상되는 유교 이념이었다. 즉 선인과 악인의 대립 구조를 더 격렬히, 그리고 원천적으로 상투적 서사 관습으로 장착시킴으로써 이에서 흥미와 교훈 두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런 유교적 이념과 사상이 이윤 추구라는 목적의식과 결부되어 나타났을 때, 이를 특별히 ‘상업적 도덕관’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생산 주체만 갖고 있던 고유한 도덕관이 아니라, 당대 사회 구성원이 모두 지향하던 도덕관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도덕성으로 무장한 국문소설 ‘책’은 금서가 된 적이 없었다. 정치적 제약이 상업적 소설책의 유통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소설책이 사회 전복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정치서나 이단적 사상서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문소설 작품에서 발견되는 불온한 비판, 내지 불평의 서사와 달리, 당대인들은 국문소설에서 생산 주체의 도덕관과 이념 교화용 서사에 만족하고 그런 이야기를 소비할 욕구가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문소설이 일면 통속소설로 폄하될 순 있어도, 그렇다고 배척당하거나 금서로 처분당할 가능성은 낮았다.

이런 점에서 국문소설이 도덕 상품의 별칭이라 해도 별반 새롭지 않다. 국문소설이 통속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념 교화용 상업적 도덕관을 철저히 담보함으로써 미상의 상업 주체들은 일종의 결정적 주도권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소설 부정론이 적지 않았던 유교 사회에서 소설이 ‘책’으로서 급성장하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엔 바로 무명의 책 생산, 판매업자들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시도한 상업적 가치 추구가 한 몫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3. 19세기 세책본·인쇄본 소설의 상품 가치와 통속소설의 위상

1) 기획 상품으로서의 『남원고사』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세책점을 통해 유통된 세책본 소설이 단일한 성격을 지녔다고 보긴 어렵다. 18세기만 해도 세책본 소설은 수공업 형태의 필사본뿐이었다.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자(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 규모와 공급이 가능했기에 세책 독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문소설의 장편화와 분책에 의한 회전율이 세책 영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였다. 사대부가 여성과 궁녀 등 일부 여성 독자를 중심으로 한 세책 영업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세책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필사본 책만 가지고 독점적으로 소설 유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목판에 새겨 대량 생산하는 단권용 방각본 소설이 인기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독점적 위치를 차지해 온 필사본 세책용 소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방각본 소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던 19세기 중반에 세책본으로 제작된 필사본 『남원고사』(1864)는 이런 경쟁 상황과 당대 독자 취향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의 한 예라 할 것이다. 실제로 인기를 누렸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상품 가치를 지닌 소설책으로 만들고자 한 흔적을 『남원고사』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²⁵⁾

첫째, 『남원고사』는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은 『열녀춘향수절가』보

25) 『남원고사』가 기획 상품인 것과 결과적으로 유행하거나 인기를 누렸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생산 주체가 일부러 목적의식을 갖고 『춘향전』 이본을 만들었으나, 그것이 여러 조건에 의해 널리 향유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생산 주체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으로 인기 있는 소설책을 새로 재구성해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도 두 배나 되는 분량을 자랑한다. 그것은 새로운 사건이나 서사가 ‘창작’되어 추가됐기 때문이 아니라, 당대에 유행했던 각종 노랫말 가사가 대거 ‘삽입’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널리 알려진 ‘춘향 서사’에다 당대 인기 있던 노래들(가사, 사설시조, 잡가, 민요)과 각종 인기 소설 내용을 적절히 버무려 놓은 것이다.

예컨대, 『남원고사』는 시작 부분부터 『구운몽』을 소재로 한 사설시조를 등장시켰다.²⁶⁾ 그것은 마치 오늘날 드라마에서 제1회 분에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임팩트 있는 장면이나 사건, 흥미소를 앞부분에 전진 배치시키는 목적과 유사하다. 『남원고사』에는 이러한 사설시조뿐 아니라 당대에 유행했던 총 26편의 시가가 수록되어 있다.²⁷⁾ 가사 문학의 백미로 평가받는, 정철의 가사(歌辭) 『사미인곡』은 춘향이가 떠나간 이몽룡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대목에서 전문이 통째로 삽입되어 있다.

이렇듯 기성품(기존 시가 작품)을 통째로 가져다 ‘삽입’하는 제작 방식을 취한 것은 역량 있는 개인 작가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순수 창작자라기보다 개작, 내지 편집 역량과 감각이 뛰어난 이가 만들어낸 것이라 할 것이다. 한문 전기(傳奇)소설 작품에 실린 한시들이 기성 한시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 서사 전개와 주제 의식 구현, 또는 분위기를 살리거나 심리 묘사를 위해 작가가 직접 창

26) “천하명산 오악지중(五岳之中)에 형산(衡山)이 높고 높다. 당(唐) 시절에 젊은 중이 경문이 능통하므로 용궁에 봉명하고 석교상 늦은 봄바람에 팔선녀 희롱한 죄로 환생인간하여 출장입상다가 태사당(太師堂) 돌아들 제, 요조절대(窈窕絶代)들이 좌우에 벌였으니, 난양공주, 영양공주, 진채봉, 가춘운, 계섬월, 적경홍, 심요연, 백능파와 슬커정 노니다가, 산중일성(山鐘一聲)에 자든 꿈 깨것다. 아마도 세상 명리(名利)와 비우희락(悲憂喜樂)이 이러한가 하노매라.”(이운석, 『남원고사 원전 비평』, 보고사, 2010, 37쪽.)

27) 『남원고사』계 『춘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원고사』, 도남문고본 『춘향전』, 동양문고본 『춘향전』, 동경대본 『춘향전』에는 무려 39편에 이르는 사설시조, 단가, 가사, 민요 등의 시가가 수록되어 있다.(윤덕진, 『남원고사』계 『춘향전』의 시가 수록과 시가사의 관련 모색, 『한국시가연구』 27집, 한국시가학회, 2007, 314-316쪽)

작한 ‘주제시’ 성격을 띠는 것과는 사뭇 다른 구성 방식이다. 그렇기에 『남원고사』를 “당대 애창 곡목을 배열한 가집으로서의 역할”²⁸⁾을 한다고 평가한 것도 이와 상통한다.

이를 개인 작가가 기성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서사 구성으로는 작가의 창작 역량 내지 주제의식은 거세되거나 약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작자 미상인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인기에 영합한 상품을 내놓기 위해 재구성, 재편집,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그러한 세책용 소설책의 탄생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기획 의도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결과임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분량이 늘어나면 분책(分冊)하기에 용이하다. 실제 『남원고사』는 1864년부터 1869년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5권 5책 형태로 존재한다.²⁹⁾ 세책점에서 취급된 『남원고사』가 전체 5책 분량으로 분책하는 데 있어 미상의 작자가 창작한 것을 세책업자가 그저 물리적으로 5책으로 묶어냈다고 순전히 이해하고 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³⁰⁾ 세책업자의 기획력 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들어간 결과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남원고사』에는 당대 유행하던 문화가 총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조, 잡가, 가사 등 당시 풍미하던 인기 대중가요뿐 아니라 시정인들의 재담과 욕설, 그리고 속담, 놀이, 점복, 관상 등 사회 풍속과 각종 술이며 꽃과 나무 등 취미 생활에 관한 것, 고급의 충신열사 위인들, 미녀와 장수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거기에다 왈짜와 기생처럼 특정 부류의 풍경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당대 실내 장식

28) 윤덕진, 『『남원고사』계 『춘향전』 수록 시가의 서사양식화 과정』,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290쪽.

29) 이윤석, 『남원고사 원전 비평』, 보고사, 2010, 33쪽.

30) 실제로 세책용으로 유통되었던 일본 동양문고 소장 『춘향전』도 10권 10책으로 존재한다.(이윤석, 위의 책, 33쪽)

(인테리어)이나 흡연, 패션과 노름판 등 당대 일상생활의 단면들도 풍성히 제시되어 있다. 이는 『게우사』에서 왈짜 무숙이가 기생 의양이를 첩으로 맞이하면서 집을 지어줄 때, 집 안 조경부터 내부 인테리어와 각종 살림 도구를 사치스런 물건들로 채워놓는 장면 묘사와도 대동소이하다.³¹⁾ 『게우사』 향유층의 취향과 『남원고사』 향유층의 관심사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것들을 자세히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모두 당대 독자 취향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 보드리야르는 ‘욕구=생산의 산물’이 아닌 ‘욕구 체계=생산 체계의 산물’이라고 말했다.³²⁾ 그는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자본이 커질수록 새로운 욕구와 욕구 체계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이는 욕구 체계라는 것이 개인과 사물의 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의 요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의 다름 아니다. 조선 후기 상업 생산의 발달에 따라 발호했던 중간 계급의 소비 심리와 과시욕이란 실은 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심리적 산물이라는 말이다. 이전 시기와 달리, 19세기에 『남원고사』나 『게우사』를 비롯한 판소리계 소설에서 이러한 과시적 소비 욕망이 자주 등장한 것도 바로 그 시기에 상업경제의 발달에 따른 사치와 과시의 욕구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소비의 형태를 일일이 나열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세책 독서를 선호하는 소비자 취향에 부응한 서사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세책집에서 취급한 세책용 소설책은 더 이상 18세기에 다수

31) 『게우사』에서 방안 치례의 화려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대목을 들면 다음과 같다. “방안 치례 차릴 적의 각종 중판(角壯壯版) 당지도며 미화류 방중 기천도를 흥승 보게 거러두고 디모병풍 습국 그림 구운몽도(九雲夢圖) 유향도며 관동팔경 조흔 그림 각병의다 그리고 화류평승 금꼭서안 습충들미 각계슈리 오시목 가진 문갑 죽기흙농 반다지며 디모척승(玳瑁冊床) 순호필통(珊瑚筆筒)”(김중철 주석, 『게우사』, 『한국학보』 65집, 일지사, 1991, 226쪽.)

32)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95쪽.

등장한 고급소설, 곧 유교 이념을 내세운 가문소설에 국한되지 않았다. 대중 독자 취향에 부합한다 판단되는 통속소설 위주로 그 대상이 다원화되었다. 현전 가장 오래된 세책본 소설인 『남원고사』가 나타난 이유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소설 중에는 생산 주체의 의도가 반영된, 대중 독자 취향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난 것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상품 가치로서의 ‘영웅의 일생 서사 구조’

상업적 도덕관과 이윤 추구 욕구는 결국 통속소설, 또는 대중소설을 평가하는 시선과 만나게 된다. 이것은 19세기-20세기 초의 소설사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된다.

조수삼(趙秀三)이 증언한 ‘傳奇叟’ 이야기나 이옥(李錫)의 기록³³⁾, 그리고 대마도 일본인 역관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가 기록한 『상서기문(象胥記聞)』(1794)³⁴⁾에서 『숙향전』, 『소대성전』, 『구운몽』, 『임경업전』 등의 소설을 인기 있는 독서물로 언급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18세기 말~19세기에 소설이 더욱 통속화하고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 오락물로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대부가 여성들이 즐겨 향유하던 국문장편소설(가문소설)이 이미 18세기 초부터 세책본 소설로 등장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니와³⁵⁾ 18세기 중후반 이후로 ‘이야기’가 상품성을 갖추고 민간에 퍼져 나갈 만큼 이야기 콘텐츠가 다양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19세기에 세책본, 방각본 소설 제작의 원천으로 계속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책

33) 이옥, 『諺粹』, 『鳳城文餘』,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역주 이옥전집』 3, 소명출판, 2001, 147쪽.

34) 조수삼, 『傳奇叟』, 『紀異』, 『秋齋集』 7; 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조선 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83-84쪽.

35)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집, 진단학회, 2005, 270-174쪽.

에 실릴 만한 ‘이야기’가 필사본 형태나 낭독, 또는 암송에 의존하던 데서 탈피해 19세기에 방각본으로, 20세기 초에 활자본으로 소설책 제작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업성을 더욱 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일기 『흙영』에서 당시 민간에 국문소설책이 수백 종이 존재할 것이라 했다.³⁶⁾ 이때 그가 언급한 국문소설이 필사본인지 민간에서 인쇄본 형태로 출판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18세기 초 『구운몽』이 경기 감영에서 판각되고, 1780년대에 국문본 『임경업전』이 인쇄된 것이 확인되지만, 유만주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에 방각본 소설은 아직 활발히 나타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옥(李钰, 1760-1813)은 당시 목판본 『소대성전』을 읽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소대성전』이 실은 서울의 담뱃가게에서 부채를 두드리면서 낭독하던 인기 만점의 이야기였다는 사실까지 적어놓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긴 밤에 소일거리로 삼으라고 언패(諺稗)를 가져왔다. 이것은 인간(印刊)된 책으로 ‘소대성전’이라고 써어 있었다. 이것이 서울의 담뱃가게에서 부채를 두드리면서 낭독하던 것인가? 매우 조리가 없고 다만 사람을 키득거리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것이 패사(稗史)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대개 패사를 짓는 자는, 정사(正史)에서 의문나는 점을 교묘하게 엮보아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썼다. (중략) 어찌 황당함으로 황당함을 말하여 스스로 망령된 부류에 속해서 단지 한 번 웃음거리가 되는 것과 같겠는가? 그러나 떡갈나무 판목에 새겨서 닥나무

36) 유만주, 『흙영(欽英)』 8책 1779년 10월 23일(『흙영』 2, 서울대 규장각, 1997, 540쪽.) “지금 한글은 우리나라의 문자다. 우리나라 문자로 소설을 지은 것이 나라 안에 산재해 있는데, 합쳐서 세어보면 무려 수만 권이 될 것이고, 그 제목만도 거의 수백 종이 될 것이다. 비록 순일함과 잡스러움이 고르지 않고 기탁(寄託)한 바가 일정하지 않지만, 요컨대 모두 우리나라 패관(稗官)의 서적이다.(今諺文, 卽東國之字. 以東國之字, 作爲小說, 散在國中, 合而計之, 無慮累萬卷. 其名目, 幾數十百種. 雖純駁不齊, 托寄非一, 要皆東藩稗官之書也.)”

종이에 찍어냈으니, 두 나무가 또한 원통해 할 것이다.³⁷⁾

자신이 읽은 국문소설 책은 떡갈나무 판목에 새겨서 닥나무 종으로 찍어낸 것이라고까지 소개했다. 이야기를 창작하는 과정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주목을 요한다. 정사(正史)처럼 사실에 입각한 사건이나 실기 내용 중 의문스러운 지점을 교묘히 비틀고 상상을 덧붙여 이야기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문소설 창작의 기본원리와 서술 방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세책업자 입장에서 더는 서울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세책 영업만으로는 당시 소설 독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고객의 수요(소비 욕구) 대비 소설책 대여(생산과 공급)가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보다 더 많은 수의 이야기책과 기회비용이 요구되는 가운데 19세기 중반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목판 인쇄본 생산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방각본 소설이 다수 출현하게 된 것이다.³⁸⁾

세책 소설 독자와 세책 문화의 형성 및 발달은 방각본 출판과 그 시장 확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방각본 소설 중 세책본 소설에서 가져온 것이 적지 않았다.³⁹⁾ 방각업자는 세책점에서 이미 인기가 검증된 중단편의 작품을 위주로 분량을 축약해 판매용으로 만들었다. 제작 단가를 맞추기 위해 요약식 서술을 지향하되, 서사 구조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익숙함과 흥미를 충족하고자 한 것이 한 해결 방법이었다. 생산 주체들

37) 이옥, 「諺稗」, 『鳳城文餘』; 金鑣, 『薄庭叢書』 27-28쪽. “人有以諺稗來, 爲余消長夜者, 視之乃印本, 而曰蘇大成傳. 此其京師烟肆中, 拍扇而朗讀者歟. 大無論理, 只令人嚙嚙不已. 然余以爲勝於稗史. 夫作稗史者, 巧規正史之有疑案處, 便把作說柄. …… 曷若以謠說謊, 自歸姑妄言之科, 而只傳人一粲者乎. 然而雕以杵板, 搨之楮素, 則二木亦冤矣.”

38) 현전 자료만을 놓고 볼 때, 세책 목록에서 확인되는 작품 수는 150종 이상이고, 방각본으로 간행된 작품 수는 약 50여 종이다. 종수 면에서 더 많은 이야기책을 확보한 것은 방각본보다 세책본이라 할 것이다.

39) 이윤석, 『조선시대 상업출판-서민의 독서, 지식과 오락의 대중화』, 민속원, 2016, 65쪽.

이 통속성을 더 강력히 강화하기 위해 유형화한 서사 구조 중 하나가 바로 ‘영웅의 일생 서사구조’였다. ‘영웅의 일생 서사구조’는 이전 서사 작품에서도 사용되었지만, 통속소설 독서를 좋아하는 하층 대중 독자들의 취향에 들어맞는 흥미소를 지녔다.

기존 세책본 소설은 수제로 만든 필사본 상품이었다. 그러나 방각본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방각업자로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야 했다. 이때 통속적 영웅 이야기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도 드물었다. 일반인 대중 독자에게 흥미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기 위해선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용이한 기존 서사 유형을 가져와 간단히 반복적으로 서사 재생을 할 수 있어야 했다. 이때 ‘영웅의 일생 구조’를 기본 서사 골격으로 삼아 변주와 변형을 시도하는 것이 이윤 창출에 효과적이었다. 생산 주체는 일반 독자들의 요구에 부합한 유용한 서사 구조였던, 이런 기존 영웅의 일생 구조를 기존 필사본 글을 참고해 노골적으로 가져다 씌으로써 일반 독자의 독서 취향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상품성을 강화해 나갔다.

당대 독자들이 영웅의 일생 서사 구조를 좋아하고, 그러한 서사적 틀 거리가 작품 속에 몰입, 참여케 하는 매력이 있음을 알게 된 생산 주체들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기 보장의 안전장치로 유사한 패턴의 서사 전략을 취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정은 아래 당대 독자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패관언서(裨官諺書)는 한결같이 남녀의 혼인으로 시작해 규방의 행적을 두루 서술했으니, 서로 약간의 같고 다름은 있지만 다 가허착공(架虛鑿空)하고 지리번쇄(支離煩瑣)하다. 그러나 인정세태에 대한 묘사가 우수하다. 무릇 비환득실(悲歡得失)의 경계와 현우선악(賢愚善惡)의 분별이 왕왕 독자의 정서적 감발을 부른다. 여항 부녀자들은 탐독하면서도 싫증을 내지 않는다.⁴⁰⁾

40) 서유영, 『六美堂記小序』,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 아세아문화사,

19세기 중반에 서유영(徐有英, 1801-1874)은 비슷한 패턴의 서사 전개와 권선징악적 주제를 담은 국문소설[稗官諺書]이 여항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했다. 고객(독자)은 영웅 주인공의 결말이 어찌 될지 잘 알고, 유사한 사건 전개의 반복으로 인해 이후 사건 전개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익숙한 상황과 사건 전개에 몰입했고, 거기서 참여적 즐거움과 공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그렇기에 영웅의 일생 구조에 따른 고난과 조력자의 등장, 전형적 인물의 설정, 거기 에다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서사적 유형성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소설책에서 거듭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기존 서사(주몽 신화, 서사무가 바리데기 등)에서 일반인에게 흥미롭게 다가갔던 요소를 적극적으로 끌어와 활용하려는 데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개인 작가보다 소설책 생산 주체 쪽이었다. 그렇기에 통속성이 다분한 소설일수록 작가 개인의 창작 의도나 주제 의식은 거세되고, 반대로 생산 주체의 이윤 추구 논리와 입김이 더 작동함으로써 몰개성적 대량 생산품이 되기 쉬웠다. 이런 분위기는 20세기 초 활자본 소설 제작과 판매로까지 이어졌다.

19세기 후기 세책점에서 기존 필사본 국문장편소설(가문소설) 외에 점차 늘어나는 전책류 영웅소설 필사본과 방각본을 가리지 않고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독자층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려니와 통속소설, 아니 대중문학의 판도 그만큼 커졌음을 잘 보여준다. 1904년, 한국을 방문했던 스웨덴 기자 아손의 눈에도 그런 분위기가 역력히 보였다.

코레아 여성들은 시, 여행담, 사랑과 미움, 희로애락, 복수, 탐욕, 절개와 배반, 도깨비, 귀신, 용, 영혼 등을 다룬 소설을 즐겨 읽는다. 이러한 책들은 서울에 있는 도서관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볼 수 있는데, 대다수 책들이 문란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어서 만약 유럽에서라면 당장 법정에 설 성질의 것들이다.⁴¹⁾

1980, 305쪽.

20세기 초 세책점에서 책을 빌려다 보던 조선 여성들의 존재와 그들이 즐겨 향유하던 소설책이 통속적 문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언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새로운 출판 수단, 곧 서양의 신식 인쇄기가 들어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조판해 책을 출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방각본 소설 제작 대신 활자본 소설책 제작으로 변하면서 텍스트의 자본화는 더 심화되었다. 방각본과 활자본 출판은 공통적으로 소설책의 대량생산을 실현시켰고, 제작 방식과 비용 면에서 활자본이 방각본보다 훨씬 뛰어났기에 대체는 활자본 출판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표지에 컬러 그림을 삽입하고, 조판하기 쉽고 글자체를 가지런히 조판할 수 있었기에 읽기가 매우 쉬워졌을 뿐 아니라 책의 크기도 줄어 휴대와 관리도 쉬워졌다. 따라서 새로운 감각과 취향을 지닌 고객(독자)이라면 기존 필사본, 방각본 소설책보다 활자본 책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 쉬웠다. 굳이 번거롭게 책을 빌려 볼 필요 없이 저렴한 책값을 내고 직접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쉬워진 시대로 바뀐 것이다.

또한 20세기에 고소설 독서 및 출판 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되고, 신문과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와 지식, 이야기를 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 이상 예전처럼 세책점만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점과 신식 출판사가 출현하고 새로운 독서물이 등장함에 따라 상품 가치를 지녔던 세책본, 방각본 소설들은 점차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생산 주체들도 이에 따라 활자본 소설책 출판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활자본 소설이 새로운 사상과 내용, 기법을 담아 일반 독자들의 소설 독서 취향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상품성을 인정받은 인기작을 다만 활자로 바꿔 재출판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41) 아손 그랩스트, 김상열 옮김,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건다』, 책과함께, 2005, 185쪽.

신작 구소설이라 할 활자본 소설도 등장했지만, 그것 역시 새로운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만큼 변화한 사회상과 주제 의식을 담아내지 못했다. 활자본 소설 생산 주체들은 기존처럼 도식적인 ‘권선징악’ 논리와 유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승부를 걸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구태의연한 사건 전개와 진부한 인물형은 새로운 독서물을 바라는 독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 진부한 도덕관에 입각한 서사 전개는 매너리즘에 빠진 통속소설, 대중소설이 되었고, 독자들의 관심에서 차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4. 나오며

통속성의 의미는 시대별로, 개인별로 각각 다르고 가변적이며, 인식과 접근 시각 자체도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통속화를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소설사적 현상으로 보고, 통속성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제반 서사적 특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⁴²⁾ 상업적 이유에서 생산된 까닭에 당대 일반 독자를 위해 창작된 소설을 통속소설, 연의소설, 대중소설 등이라 부를 수 있거니와, 소설 자체를 ‘정사(正史)에서 다루지 않는 서사’로 여겼던 선인(先人)들의 시각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소설 자체가 곧 통속 문학이 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19세기에 통속소설, 대중소설 등으로 평가될 법한 국문소설을 적극 향유한 이들이 다수 존재했고,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설책과 이야기를 활발히 소비했다는 점이다.

본고가 이야기로서의 소설과 상품으로서의 책이 만난 지점에 주목한 것도 19세기 소설책의 상품 가치를 중시하던 소설책의 위상을 재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세책본, 방각본, 활자본 소설의 등장과 발달 과정에서 독

42) 양승민, 『한문소설의 통속성』, 보고사, 2008, 38쪽.

자와 작가뿐 아니라 소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유통한 이들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일지에 천착해 본 것이다. 세책본 소설과 방각본 소설이 통속소설로서 이윤 추구와 유교 이념을 내세운 상업적 도덕관이 작동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보았다.

『남원고사』는 세책용으로 생산 주체들이 만들어낸 기획 상품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방각본 영웅소설에서 자주 사용된 ‘영웅의 일생 서사구조’는 서사의 질 제고를 위한, 텍스트용 서사 장치라기보다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들인 서사 장치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생산 주체들이 방각본 영웅소설에 ‘영웅의 일생 구조’를 장착함으로써 대량생산과 통속성이 강한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이것이 소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더 세밀한 사례와 논거를 보충한다면, 18-19세기에 통속성 및 상업성이 두드러진 세책본·방각본·활자본 통속소설(대중소설) 책에 대한 평가도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후속 논의에서 이를 더욱 정교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김만중,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하)』, 파주:문학동네, 2010.
- 김종철 주석, 『계우사』, 『한국학보』 65집, 일지사, 1991, 212-253쪽.
- 류탁일 편,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성남:아세아문화사, 1994.
- 『서문』, 『옥중가인』, 신구서림, 1923, 1쪽; 『구활자본고소설전집』 30책, 인천대학민족문화연구소, 1983.
- 『서언』, 『신변 구운몽』, 同文書林, 1913;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9책, 인천대학민족문화연구소, 1983.
- 『서언』, 『옥년몽』, 博學書院, 1913, 1-2쪽;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0책, 인천대학민족문화연구소, 1983.
- 서유영, 『六美堂記小序』,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 성남:아세아문화사, 1980.
- 아손 그랩스트, 김상열 옮김,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파주:책과함께, 2005.
- 유만주, 『欽英』 8책, 1779년 10월 23일; 『흙영』2, 서울대 규장각, 1997.
- 이덕무, 『婦儀(一)』, 『士小節』.
- 이옥, 『諺稗』, 『鳳城文餘』, 金鑣, 『瀾庭叢書』;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역주 이옥전집』 3, 서울:소명출판, 2001.
- 『장풍운전』, 영창서관, 1925, 31쪽, 『구활자본고소설전집』 31책,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1983.
- 조성기, 이지영 옮김, 『창선감의록』, 파주:문학동네, 2010.
- 조수삼, 『傳奇叟』, 『紀異』, 『秋齋集』 권7.
- 채제공, 『女四書序』, 『樊巖先生文集』 권33.
- 홍한주, 『장서가』, 안대회·이현일 편역, 『한국산문선 9』, 서울:민음사, 2017.

「후언」, 『김희경전』, 『필사본고전소설전집 2』, 성남:아세아문화사, 1980.
「후언」, 『쥬풍감별곡』, 세창서관, 64쪽; 『구활자본고소설전집』 제32책,
인천대학민족문화연구소, 1983.

2. 참고 논저

-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서울:보고사, 2000.
김기진, 「대중소설론」, 조성면 편저, 『한국근대대중소설비평론』, 파주:태학사, 1997.
김수연, 「명말 상업적 규범소설의 형성과 조선왕의 소설독서-규장각본 『稗世言』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35-64쪽.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흙영』과 『이재난고』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0집, 동양한문학회, 2010, 5-28쪽.
김종철, 「상업주의소설론」, 『한국문학의 현단계 II』, 파주:창작과비평사, 1983.
大谷森繁 외, 『세책 고소설 연구』, 서울:해안, 2003.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성남:아세아문화사, 2000.
류준경, 「지식의 상업 유통과 소설 출판」, 『고전문학연구』 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299-335쪽.
마이클 김, 「서양인들이 본 조선후기와 일제 초기 출판문화의 모습」, 『열상고전연구』 1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4, 173-198쪽.
박성봉, 『대중소설의 미학』, 서울:동연, 1995.
양승민, 『한문소설의 통속성』, 서울:보고사, 2008.
엄태웅, 「회동서관의 활자본 고전소설 간행 양상」, 『고소설연구』 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475-509쪽.

- 오영균, 『책의 문화사에서 보는 책의 나라 조선』, 『장서각』 4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6-35쪽.
- 유춘동, 『20세기 초 구활자본 고소설의 세책 유통에 대한 연구-장서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장서각』 1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171-188쪽.
- 윤덕진, 『『남원고사』계 『춘향전』의 시가 수록과 시가사의 관련 모색』, 『한국시가연구』 27집, 한국시가학회, 2007, 307-350쪽.
- _____, 『『남원고사』계 『춘향전』 수록 시가의 서사양식화 과정』,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265-295쪽.
- 윤덕진·임성래, 『노래로 엮은 『춘향전』·『남원고사』의 서사화 방식』, 서울:소명출판, 2016.
- 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조선 후기 소설 독자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 이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화사연구』 39집, 민족문화사학회, 2009, 28-56쪽.
-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 관계 연구』, 서울:역락, 2007.
- _____, 『18-19세기 동·서양 세책 문화 연구 시론』, 『열상고전연구』 58집, 열상고전연구회, 2017, 87-137쪽.
- _____, 『고소설 독서 주체로서의 사대부가(家) 여성 독자층에 대한 통시적 이해-계층적 소설 독서 문화 취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95집, 국어국문학회, 2021, 177-215쪽.
-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 과정 시론』, 이상택·성현경 편, 『한국고전소설연구』, 서울:새문사, 1991.
- 이윤석·大谷森繁·정명기 편저, 『세책 고소설 연구』, 서울:혜안, 2003.
- 이윤석·최기숙, 『남원고사』, 파주:서해문집, 2008.
- 이윤석, 『남원고사 원전 비평』, 서울:보고사, 2010.

- _____, 『조선시대 상업 출판-서민의 독서, 지식과 오락의 대중화』, 서울:민속원, 2016.
- 이정원, 「안성판 방각본 출판현황」, 『어문연구』 33권3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05, 161-184쪽.
- _____, 「안성판 방각본의 소설 판본」,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219-244쪽.
- 임성래, 『조선후기 대중소설』, 파주:태학사, 1995.
- 임형택, 「문화현상으로 본 19세기」, 『역사비평』 35호, 역사비평사, 1996, 58-72쪽.
-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서울:문예출판사, 1991.
- 전상욱, 「세책 대출장부 연구: 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 『열상고전연구』 27집, 열상고전연구회, 2008, 361-396쪽.
- _____, 「세책 대출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동양문고본 대출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239-274쪽.
- _____, 「세책 총목록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0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163-183쪽.
- 정명기, 「세책본 소설의 유통양상-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소설에 나타난 세책 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3-100쪽.
-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집, 진단학회, 2005, 263-297쪽.
- _____,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서울:지식산업사, 2001.
- 조현설, 「남성 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서울:소명출판, 2003.
-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 27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201-229쪽.

- 최호석, 「안성의 방각본 출판 입지」, 『국제어문』 34집, 국제어문학회, 2005, 89-129쪽.
- _____, 「지송옥과 신구서림」, 『고소설연구』 19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255-282쪽.
- _____, 「안성판 방각본 출판의 전개와 특성」, 『어문논집』 54집, 민족어문학회, 2006, 173-197쪽.
- _____, 「대구 재전당서포의 출판 활동 연구-재전당서포의 출판인과 간행 서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권4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06, 229-253쪽.
- _____, 『활자본 고전소설 서지 데이터베이스』, 서울:보고사, 2017.

<Abstract>

A Study on Circulating Business and Printing of the Old Novels in Terms of Commodity Production

Lee, Min-Heui*

This paper deals with the emergence of novels in the aspect of commodity production, the attempt to give meaning to the issue of reading, publishing, and novel reading from a transitional perspective. It is not merely to evaluate book sellers and publishers as production subjects that have led to the commercial success of Korean old-novels, but rather to monopolize the novel distribution and publishing market, to determine form and price. Books for rent and print novels are popular novels. These novels contain commercial morality that embraced Confucianism. Publishers, mortals and book sellers are actively seeking to increase the value of their products.

The increase in commercialized novels means that novels have changed from 'ideology-centered' ethics novels to 'entertainment-oriented' popular novels. It means that the ideology that the artist pursues individually combines with the morals of the producers, and another form of ideology, that is, the commercial morality of the production subject, is transferred into the work.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vels published in the late 19th century by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novels,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focusing on the novel Namwon-gosa(南原古詞)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As a result, I considered that Namwon-gosa corresponds to the novel of planning product produced by the production subject for circulating books. And the step-by-step narrative development pattern based on the 'lifetime narrative structure of the hero', which is commonly seen in the heroic novels is a sales narrative device for enhancing commercial value.

When these discussions are combined and supplemented with more detailed cases and arguments, the evaluation of popular novels, which are evaluated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rculating books' culture and printed books' culture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From this point of view, if we look at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existing research view that we have defined as 'the history of stagnation and reaction' requires inventories.

Key Words: Commodity Production, Production Subject, Commercial Morality, *Namwon-gosa*(南原古詞), Lifetime Narrative Structure of the Hero, Popular Novel, Commercial Value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4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5일

